

“토요일엔 마랑으로~!” 마랑놀토수산물시장 11일 개장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가득, 월별 테마·물놀이장·경품까지 콘텐츠 대폭 강화

강진군의 대표 행사인 2026년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이 오는 11일 마랑향 중앙과제 일원(마랑면 미향로 152)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올해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신선한 수산물 판매는 물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형식적인 개장식을 생략하고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실속 있는 행사로 운영된다. 특히 11일 토요일에 유지나, 풍금 등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 이벤트로는 전복 40%, 건어물 최대 2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연계하면 신선한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아간에는 미디어파사드와 LED 바다 분수가 어우러져 마랑향의 밤을 환상적으로 수놓으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운영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됐다. 월별 테마형 이벤트와 제철 수산물 할인 행사가 상시 운영되며,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등 계절 특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수증 이벤트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시설 및 콘텐츠 개선도 눈에 띈다. 올해는 천연염색 판매부스가 새롭게 입점했으며, 시장 내 페인트 도색과 노후 간판 교체 등을 통해 전반적인 환경을 정비했다. 또한 전담대 카페 운영을 강화해 오션뷰를 배경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를 매일 정기 운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방문객 및 소비층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후 강진군을 대표하는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난 2025년에는



총 27회 운영을 통해 약 6만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기여하며, 지역 재정 안정과 생활인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마랑놀토수산물시장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보성군 조성면-고흥군 대서면, 2년째 상생 협력

양 기관 직원 24명 참여... 교류 확대 및 지역 상생 강화

보성군은 지난 2월 조성면이 고흥군 대서면과 고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부 추진하며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것으로, 조성면장과 직원들이 직접 고흥군 대서면사무소를 방문해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고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기부에 참여했으며, 조성면과 대서면에서 각각 12명씩 총 24명이 동참했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행정·민간 분야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한, 보성군의 대표 행사인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와 고흥군 ‘대서면민의 날’을 상호 홍보하며 지역 간 연계 효과를 높였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고흥군 대서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 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담배품이 제공된다. 보성군에 기부하면 지역 특산품을 담배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성/김운기 기자

담양군이 지난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해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담양만의 혁신적인 상수도 현대화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번 발표에서 담양읍과 장평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총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해 일궈낸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사례로는 구역별 배수 시스템 구축과 관망 관리 기반 마련,

담양군, 노후 상수도 정비 ‘전국 최우수 모델’로 우뚝

전국 지자체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예산 절감 성과 공유

실시간 물 사용량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한 데이터 관리 등이 꼽혔다.

또한 과학적인 수압 관리 체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수압을 측정하고 밤사이 최소 유량을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담양군은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45만 톤의 누수를 막고 있으며, 이는 수돗물 생산 원가 기준 연간 약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수치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난 2월 ‘2027년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신청했다. 차기 사업

에 선정되면 용면 용흥, 무정, 고서 지역 등 미정비 구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군 전체에 고품질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담양의 물 관리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광양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와 강우로 인한 산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까지 산사태취약지역 269개소와 사방 시설 143개소 등 총 41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비가 내릴 경우 토사 유실이나 붕괴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에 광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앞서

산사태취약지역·사방시설 안전점검 실시

광양시, 우기 전 점검·정비로 시민 생명·재산 보호 강화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정비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산림소독과와 산림재난대응단, 읍면동이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면 균열, 지반 침하, 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요인 ▲사방댐과 계류시설의 균열·침하·변형 여부 및 배수 기능 이상 여부 ▲대피정보 현행화 ▲대피소 및 안내표지 설치 상태 등이다.

광양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정비하고, 우기 전 추가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성군 임산부 지원 ‘스마트하고 촘촘’

디지털 기기 활용 산모 건강 관리...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 지원

장성군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임산부 건강 종합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스마트 맘케어’ 사업에 참여할 임산부를 모집한다.

‘스마트 맘케어’는 △고위험 또는 산후 우울 위험 △저소득·다문화·차상위 △초산모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출산부에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손목시계(스마트워치)와 체중·혈압·혈당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건강을 측정하면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인력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건강기록-실천-피드백’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인력들은 임산부의 건강지표 변화와 수면, 식사, 활동 등 생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건강 실천 목표를 제안한

다.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연계 등도 권고한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에는 큰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 김모 씨(장성읍)는 “임신 기간에 건강 관리가 힘들었는데, 꼼꼼하게 상담받고 생활 습관을 조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장성군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1-390-8363)로 상담받으면 된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지난해 함께출산율 전국 2위에 오른 저력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살기 좋은 장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암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기기 도입비 최대 100만원

영암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온라인 주문 확대와 비대면 소비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술기기가 도입 비용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문·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 정상 영업 중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

상공인이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와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도입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1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

지 가능하며, 영암군청 지역순환경제과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학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은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